

## 『베이지주의』: 베이지주의 인식 공동체로의 여정

최 훈<sup>†</sup>

논문 중심의 학계 풍토에서 저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동시에 학문적인 토론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과학철학』의 북 심포지엄이 이번 호로 세 번째를 맞았다. 17권 3호의 전영삼 교수의 『귀납』, 18권 3호의 신상규 교수의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에 이어 이번 호에는 이영의 교수의 『베이지주의: 합리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의 여정』(한국문화사, 2015)를 대상 도서로 삼게 되었다.

입증이나 설명이나 증거는 과학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이고, 베이지주의는 이에 대한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다. 베이지주의에 대한 이 교수의 20여년의 연구가 집약된 것이 『베이지주의』이다. 그는 확률의 신념도를 규제하는 합리성이 베이지주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평가하는데, 베이지주의가 과학적 추론과 과학 방법론에 관한 좋은 이론으로 남으려면 이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과학 방법론으로서의 베이지주의가 지닌 일차적 덕목은 합리성이 아니라 객관성으로 보고, 그것을 확보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의도는 이 책의 부제에도 담겨 있다.

이번 북 심포지엄에는 네 편의 논문이 실렸다.<sup>1)</sup> 먼저 전영삼 교수가 주목하는 바는 이영의 교수가 모색한 합리성에서 객관성으로의 선회이다. 전 교수는 이 교수의 이런 작업은 베이지주의 방법을 어느 면에서

<sup>†</sup>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양학부, choih@kangwon.ac.kr.

1) 지난 7월 6일~7일에 한국분석철학회와 한국과학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학술대회에서는 여영서 교수도 발표했으나 개인 사정상 투고를 하지 않았다.

더욱 더 ‘확장’하는 일이라고 평가하지만, 왜 이처럼 확장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가장 큰 취약점은 그러한 확장과 정당화 사이의 간극에 놓여 있는데, 이 교수가 말하는 사회적 간주관성으로서의 객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베이즈주의적 합리성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천현득 교수도 베이즈주의의 일차적인 덕목이 합리성보다 객관성이라는 이 교수의 주장을 검토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천 교수는 그 외에 이 교수의 과학적 객관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 구성주의로부터 객관성을 지키려는 이 교수의 시도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는 보일-홉스 논쟁에서 진공 펌프의 인식적 역할에 관한 평가를 통해 진행된다. 김준성 교수는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파고드는데, 베이즈주의 인과 이론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심슨 역설이 SGS(Spirtes, Glymour, Scheines)가 제안한 충실성 조건에 반례가 된다는 데에 주목하는데, 김 교수는 이에 대해 SGS 이론이 여전히 유망한 연구 프로그램이며 충실성 조건이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학계 원로이신 이초식 교수는 ‘서평의 사회 인식론’이라는 흥미 있는 주제를 다루어 주셨다. 이초식 교수는 이영의 교수의 베이즈주의적 사회 인식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 인식론을 제안한다. 개인의 인식에 치중하는 전통 인식론에 비해 사회 인식론은 인식론을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하는데, 이초식 교수는 이를 서평 논의의 틀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는 북 심포지엄을 인식 주관으로 간주하고, 참여자를 비롯해 베이즈주의를 철학함의 도구로 검토하거나 그 자체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식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 크지 않은 국내의 과학철학 연구진의 규모를 생각해 볼 때 베이즈주의 연구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꽤 많은 편이다. 『베이즈주의』뿐만 아니라 17권 3호의 대상 도서인 『귀납』도 베이즈주의를 주요 논제로 삼고 있으며 그간 『과학철학』에도 이 주제에 대한 논문들이 꾸준히 실렸다. 이는 이초식 교수님을 필두로 이영의 교수가 참여한 ‘베이

즈주의 인식 공동체'가 형성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북 심포지엄이 더 많은 인식 공동체가 구성되어 우리의 연구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